

5. 향후 방향

황사의 방지와 통제는 확고한 의지와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황사 지역망의 구축과 시범 사업을 위한 투자전략은 단계적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황사 발생 방지 및 통제(RETA 6068)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단계별 접근 방식은 각 요소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 두 가지는 제 2권: 동북아 지역 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망 구축, 제 3권: 시범사업을 통한 황사 방지 및 통제 투자 전략이다.

두 가지의 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및 기관들(한국, 중국, 일본, 몽골, ADB, UNCCD, UNESCAP, UNEP)은 동북아에서의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사업을 시행할 방법을 토의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후속 기술 지원의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다.

- (a)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
- (b)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 제공
- (c) 시범 사업의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수행 및 중국-몽골 접경 지역 시범사업 중에서 선정된 부분 사업의 시행을 통해 황사 완화에 대한 지원 제공

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의 보조자금을 포함한 GEF 자금을 개발하여 황사 대응을 위한 준 지역 차원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황사 방지와 통제의 중요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담은 CD 형태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재정 지원국 또는 황사로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홍보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황사 지역망과 시범 사업의 강화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아이디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 (a) 황사 관측과 자료 공유를 위한 표준 운영 방법 개발
- (b) 관련 4개국 간 황사 시뮬레이션 및 예보 기술 교환 및 공유 촉진
- (c) 역내 전문가 연계망 구축 및 훈련 능력 강화 촉진
- (d) 기능 요원 및 운영 요원에 대한 현장 교육 실시
- (e) 황사 저감 기술에 관한 경험 및 모범 사례 교환 및 공유 촉진 노력에 대한 지원

다음 단계로 4개국은 기본계획을 자국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4개국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또한 민간 부문을 위시한 모든 이해 당사자(예를 들어 J-

그린¹⁾들에게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황사 저감 기술과 관련한 준비 차원의 연구 및 이행 활동을 권장한다.

¹⁾ J-그린은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기관인 녹색자원기구를 의미한다.